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 행동’
판을 흔들자! (Rock the Vote)

2007대선시민연대 출범식

2007년 08월 30일 11시 |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2007대선시민연대

110-040,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 02-6933-2007, 팩스 02-6933-2008, www.vote2007.or.kr

목 차

출범식 순서	3
출범 배경	4
추진경과 및 조직현황	6
사업계획 1 (십의열정핵운동본부)	16
사업계획 2 (유권자목소리운동본부)	23
출범선언문	27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9

출범식 순서

진행 : 김금옥(대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영상 상영

인사말씀	이학영 대선시민연대 상임대표
내빈 소개		
출범배경 및 경과, 조직 현황	김민영 대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대선시민연대 사업계획 1 삶의질정책분야	최승국 대선시민연대 정책운동본부장
대선시민연대 사업계획 2 유권자참여 분야	오관영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장
시민들이 만든 2007 대통령선거 UCC 상영		
유권자의 목소리	비정규직, 택시기사, 대학생, 이토포, 여성 들이 들려주는 대선이야기
대선시민연대 출범선언문 낭독	남윤인순 / 윤준하 대선시민연대 상임대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제안 낭독	박종준 / 이상선 대선시민연대 공동대표
퍼포먼스 "Rock the Vote"		

[출범배경]

- 2007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선거
 - 우리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가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함
 - 이런 의미에서 권력감시, 환경, 여성, 인권, 복지, 언론, 종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던 여러 시민단체들이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넘어선 국가발전의 비전제시와 정책경쟁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전력투구하기로 합의하였음

- 삶의 질 정책경쟁을 이끌어내고자 함
 -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듯 양극화해소, 민생문제 해결이 가장 중차대한 과제, 그러나 구시대적 토목건설 중심의 개발론과 재벌중심체제의 유지만으로는 민생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발전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 우리사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노후, 건강 등 모든 시민의 생활상의 대안, 항구적인 전쟁위협의 제거와 평화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적으로 합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히 우리사회 미래에 역행하는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의 직접 행동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결회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함
 - 우리는 이제 선거는 후보자 중심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판을 바꿔야 할 것임
 - 시민들의 삶의 현실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집약하여, 대선 공간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고자 함
 -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국민과 유리된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함

[추진경과]

- 2007년 3-6월 : 대선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진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참가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5차례의 간담회 개최

- 2007년 7월 5일 : 대선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11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대선연대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가칭 2007대선시민연대를 구성하기로 함

- 2007 7월 19일 전국 시민·환경 단체 활동가대회
 - 군산에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주요 활동가들이 모여 대선연대기구 구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하고, 지역차원의 대선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함

- 2007년 7월 24일 2007 대선시민연대 대표자회의 진행
 - 만해 NGO기념관에서 11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사무처 구성을 위한 논의 진행. 출범식 일정을 논의함.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 2007년 8월 9일 2007대선시민연대준비위 1차 집행위원회
 - 출범식 날짜 논의, 대선시민연대 조직 구성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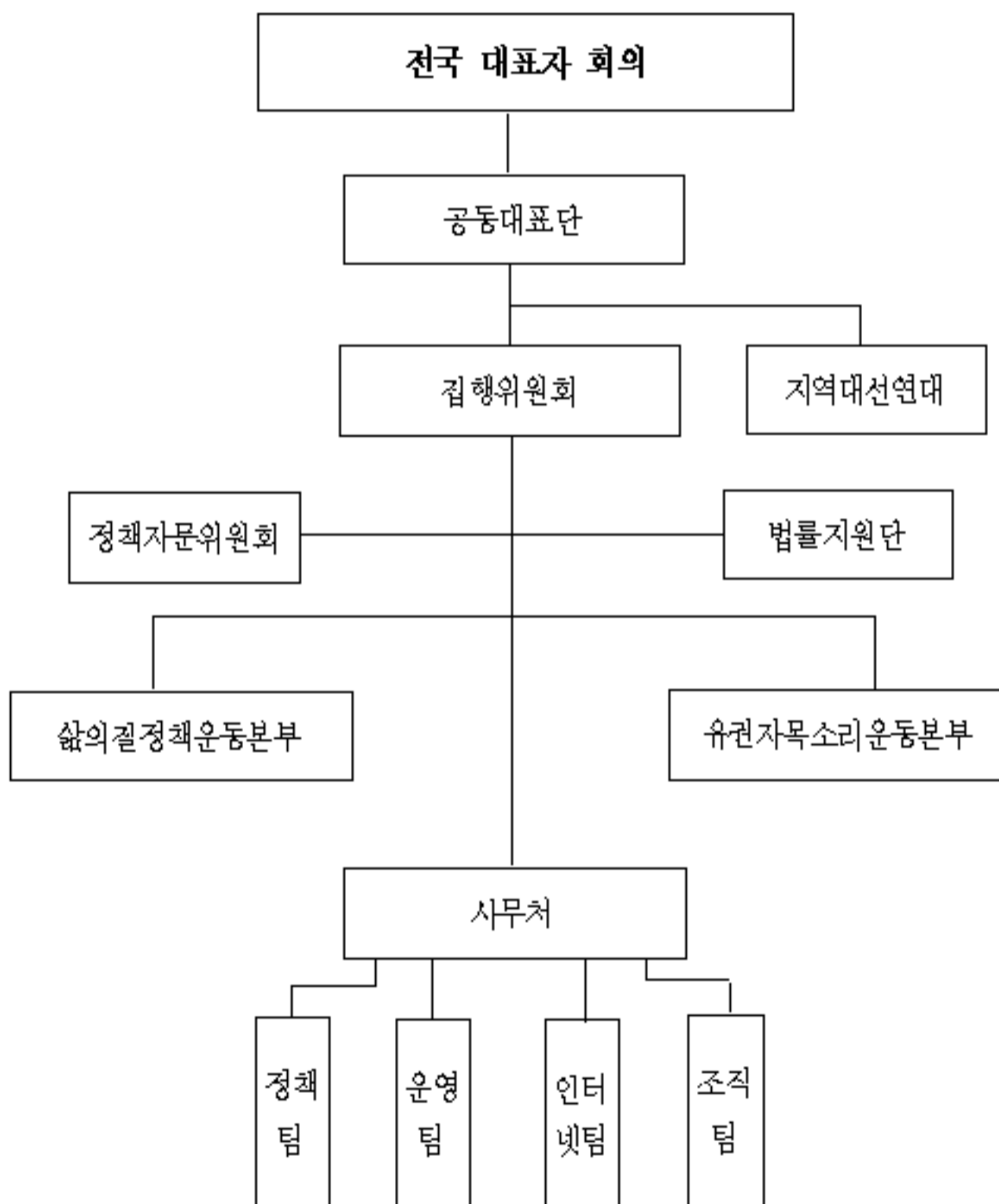
- 2007년 8월 20일 2007대선시민연대준비위 2차 집행위원회
 - 출범식 날짜 확정, 대선시민연대 임원 인선안 논의, 삶의질정책운동본부 사업계획 검토, 유권자목소리운동본부 사업계획 검토

[조직현황]

1) 명칭 : '2007대선시민연대' 로 칭함

2) 조직구성

□ 조직구성도



□ 조직방침

- 정당은 배제하되 2007대선시민연대의 취지와 활동방침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세력에
게 조직가입을 허용함

□ 의결단위

▶ 전국 대표자 회의

- 2007대선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책임대표자들로 구성
- 2007대선시민연대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

▶ 공동대표단

- 조직을 대표하는 부문별 지역별 공동대표를 15인 내외로 추대
- 집행위원외에 참여하는 약간명의 상임대표를 들 수 있음

○ 공동대표단 (가나다순)

- 강태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미현(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일희(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소정(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 박종훈(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안정선(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대전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양철호(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 전점석(경남연대회의 공동대표, 창원YMCA사무총장)

○ 상임대표단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상임공동대표단은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추가로 추대할 예정

□ 집행단위

- 단체별 관련 활동가, 전문가를 회의에 파견. 실무를 분담하여 단체별 혹은 지역별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함

▶ 집행위원회

- 활동방향에 대한 주요 의결을 담당
- 상임대표, 주요단체 책임자, 지역책임자 등으로 20인 내외로 구성
- 3-4인 내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음

○ 집행위원장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집행위원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오열(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홍성YMCA사무총장)
-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처장)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서정훈(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신대운(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은주(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정보연(KYC 공동대표)
- 정은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조유목(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광역연대기구 협의 및 추가참가에 따라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추가예정

□ 활동기구

▶ 삶의질정책운동본부

○ 공동본부장

-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실행위원회 : 각 단체 실무책임자와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됨

▶ 유권자의 목소리운동본부

○ 공동본부장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정은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실행위원회 : 각 단체 실무책임자와 조직활동 담당자들로 구성됨

▶ 정책자문위원회

○ 정책자문위원단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권정순(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영(변호사), 김진홍(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아(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심상용(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희창(제천간대학교교장), 오유석(성공회대학교 사회운동연구소 교수), 유상오(도시환경계획학 박사), 윤홍식(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대훈(성공회대 외래 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태수(현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욱(변호사),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조명래(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황순진(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

▶ 법률지원단

○ 법률지원단

- 김재영(변호사) 박태현 (변호사), 여영학 (변호사), 우경선(변호사), 이명헌(변호사), 이병일(변호사), 이재정(변호사), 장유식(변호사)

□ 광역별(권역별) 대선키민연대

- 시도단위로 광역시도별 대선키민연대를 구성
- 광역시도별 대선키민연대는 중앙의 대선키민연대의 목표와 기본방침을 공유하되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지역의 형편과 실정에 맞는 활동 전개
- 지역별 참여단체는 참가단체 현황 참조

□ 사무처

○ 공동사무처장

-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 염형철(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사무처장)

○ 공동사무처

-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에서 실무자 파견하여 정책팀, 조직팀, 운영팀, 인터넷팀 등을 두고 상근체제로 사무처를 구성함.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내에 둠.

□ 지역별 참가단체 현황 (8월 30일 현재, 전국 351개 단체)

<서울> (46)

KYC,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여민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 (29)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부평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기독교연대,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의협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경기> (38)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YM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남양주YMCA, 부천Y시민회,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안양YMCA,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

동연합, 용인YMCA,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연대, 평택YMCA, 하남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강원> (42)

(사)21세기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강릉경실련, 강릉기운실, 강릉생명의숲, 강릉소비자개발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한살림생협, 강릉YMCA,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광산지역사회연구소, 동강보존본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설악녹색연합,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YWCA,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홍천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 (26)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청주 CCC, 청주 KYC, 청주 YMCA, 청주 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남> (22)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대전> (13)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북> (18)

(사)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YMCA, 문경YMCA,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YMCA, 진안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광주전남> (57)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관현장학재단,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구례참여자치연대,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나주사랑시민회, 누리문화재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보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포럼,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해남YMCA, 희망해남21

<대구경북> (12)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천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YMCA,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경남> (34)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 숲,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창원YMCA, 창원YW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YMCA

<울산> (3)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 (6)

부산녹색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제주> (5)

제주YMCA,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업계획]

[1] 삶의 질 정책운동

□ 운동방향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제시와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한다

- 개발주의, 성장주의에 치우친 선거 정책과 공약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탈바꿈하도록 한다.
-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 개발주의를 넘어선 녹색사회 실현, 국민 누구나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사회 실현, 학벌경쟁이 아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개혁 실현, 안보국가를 넘어선 평화국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6대 방향과 차기 정부 핵심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채택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 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대선의 중심적 쟁점과 의제가 되도록 한다.

2.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정치현실에 적극적 비판을 제기한다.

-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사회개혁과제의 해결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2007대선이 제2의 정치개혁을 이루는 장이 되도록 한다.
- 정치적 이합집산과 정치공방을 배격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건강한 정당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들 간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내용 중심의 선거 문화를 만든다.
-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편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한다.

□ 운동기조

- 한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
- 대통령 후보와 차기 정부가 수용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의 제안
- 대통령 후보와 정치세력의 비전과 공약에 대한 검증과 비판
- 대통령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입과 행동

□ 운동계획 “정책채택, 공약폐기운동”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 제시

- 1) 경제와 노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중심, 시장만능주의적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적인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문간, 기업간, 일자리의 양극화는 이미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자 성장의 걸림돌이다.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은 극복되어야 할 낡은 패러다임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법적 상속을 억제하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경제의 민주화’가 새로운 번영의 길이다.

- 2)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는 개발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의 실현

: 지난 40여 년간의 초고속성장은 토목·건축에 기반한 개발주의의 역사다. GDP의 20% 가량을 건설투자율이 차지하고 있고, 백두대간을 포함한 온 국토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토목과 건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주의 국가 운영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다. 이 시대는 개발주의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선별적 복지를 넘어

국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의 실현

: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복지는 특정 소외 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며, 현대사회의 사회계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보장에 미흡하다. 국민 누구나 질병과 빈곤, 주거와 실업, 노후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복지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며, 생산과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4) 입시와 학벌 경쟁에 줄 세우는 교육의 양극화를 넘어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0만명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200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로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확대, 대학입학제도의 전면적 개편,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 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5) 편견과 차별의 남성중심 사회를 넘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구현

: 호혜적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성차별적인 제도와 편견이 사라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아동보호가 강화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6) 긴장과 대결의 안보국가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절실하다.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복지를 외면하고, 적대적인 대결구도라는 악순환을 낳는 낡은 안보국가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강대국과 주변국의 대외정책이나 군사증강에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일관성 있는 평화의 원칙과 수단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2. 정책채택촉구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6대 핵심 과제 선정
-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6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
-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 유권자가 투표행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판단의 기준 제시
- 6대 핵심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속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9월 20일 까지 확정하여 제시

3. 정책검증 (공약폐기 운동)

-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 진행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에 부응하는 공약과 이에 반하는 '반드시 폐기해야 할 공약' 선정

■ 공약 철회 운동 전개

-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네티즌 의견개선 및 찬반 토론, 유권자 의견조사, 대선시민연대 대표자회의를 거쳐 폐기대상 공약을 선정
- 각 정당별로 반드시 폐기해야 할 공약을 선정하고,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약 철회 운동' 전개

3.1. 한나라당 후보 정책검증 활동 돌입

-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한 검증에 돌입할 예정
- 특히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간판공약이며,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공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반드시 폐기해야 공약'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할 것
- 만약 공개토론회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체 검증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관심있는 유권자 등이 모아 전국 규모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3.2.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활동

- 민주노동당 후보가 확정되는 9월 중순부터 검증 작업 진행

3.3.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활동

-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10월 중순경부터 검증 작업 진행
- 정책대결보다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에 치중하고 있는 경선과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정책선거 촉구하는 등의 활동 진행

4. 종합정책제안서 발표

- 6대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평범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집대성한 종합정책제안서를 만들고, 공식 선거운동 시기에 즈음하여 발표, 각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

-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개혁과제로 정리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

5. 현안 대응 활동

-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검증
-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의 개정 운동과 선관위 방침에 대한 항의행동 전개
-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정치, 비방정치 등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 기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

6.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 한국사회 6대 비전 및 핵심 의제 설정에 대한 정책자문
- 주요 후보자의 공약 분석, 공약폐기운동 대상 선정 활동에 대한 자문
- 정책자문위원회는 6대비전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환경, 복지, 교육, 성평등, 평화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구성

7. 선거보도 모니터 및 평가활동 진행

-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신문, 방송 보도를 모니터링 하여 보도 현황을 평가하고, 보고서 발행

8. 삶의질정책운동 일정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 검증 작업
 - 경부운하 공약 검증 : 공개질의, 공개토론 제안
 - 이명박 후보의 주요 공약 종합평가
- 대선시민연대 6대 비전과 6대 핵심과제 제안 : 9월 20일
- 민주노동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등에 대한 공약 검증
 -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 공약 검증 돌입

- 경선 과정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기능 강화
- 대선시민연대 정책제안 발표 : 11월 초순
- 대선시민연대 2차 정책제안 :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고 꾸려질 인수위원회에 제안

[2] 유권자목소리 운동 본부

1. 유권자목소리 운동 취지 및 방향

- 유권자 목소리의 불륨을 높인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그곳에 유권자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정당과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삶과 희망을 토론하는 대통령선거를 만든다.

- 유권자가 스스로 대선정책을 만든다

환상과 허위의 공약을 걷어내고, 우리의 생활, 행복, 미래와 함께하는 공약을 짠다.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여성 등의 의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체가 있는 정책을 만든다.

- 유권자의 직접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정치전문가들만의 리그를 관전하는 시대는 갔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세상을 바꾸는 실천을 조직한다.

2. 유권자 목소리 운동의 의미

- 유권자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 '번개'다

'번개모임'.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 만남',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대화', '경계를 뛰어 넘는 유쾌한 수다'가 있는 모임을 젊은이들은 그렇게 부른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유권자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정책이 발굴되고, 유권자들의 토론을 통해 가다듬어져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집단들이 다양한 주제로 논쟁하는 '번개'를 조직하고자 한다.

- 천 번의 번개를 모아, 낡은 판을 흔들겠다

천 번의 번개는 땅의 목소리를 하늘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민초들의 염원을 모은 정책으로 땅을 흔들겠다는 각오이다. 추상적 공약과 허황된 논쟁을 유발하는 정치권을 생활의 세계로 끌어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를 제안

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다.

3. 활동계획 : “천 번의 번개, 천 개의 UCC”

1) 1,000번의 ‘번개’, 세상을 향한 천개의 시사토론회

-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1000번의 모임을 조직한다.
- 번개모임은 ‘유권자들의 토론’, ‘모임에서의 대담’, ‘cyber 토론’, ‘홀로 혹은 이웃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펼 것이다.
- 번개는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세상의 아픔, 세상의 희망, 모든 것이 다 주제다.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부모 가정, 경부운하, 이주민, 무주택자, 교통사고 피해자, 남북정상 회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의제를 확장하고 미래의 실마리를 찾는 모든 것을 다룬다.

2) 1,000개의 UCC,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포털

- 1000번의 번개를 UCC로 기록한다. 유권자들의 생활 주장을 이웃들에게 또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0개의 UCC를 제작한다.
- UCC는 영상, 사진, 음성, 글 등의 여러 모습으로 실현되며, 휴대폰 카메라, 녹음기, 만화, 편지 등으로 생산, 유포된다. 번개의 기록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쓰여진다.
- UCC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 2007대선시민연대 사이트(www.vote2007.or.kr)는 UCC들이 자유롭게 게시되고, 교류하는 장으로 설계된다. 이곳에서 무수히 많은 삶들이 만나고,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 2007대선시민연대 사이트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활성화 것이다. UCC들은 동료들의 참여와 조언을 통해 사회 개혁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발전할 것이다.
- 1000개의 UCC를 친근하고 강력하게 홍보하기 위해 상징을 활용할 것이다. 대선시민연대의 로고와 ‘1000 번개’의 상징을 통해, 유권자 참여 선거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이

다.

3) 유권자 직접행동, 낡은 판을 흔드는 유권자들의 축제

■ 대선시민연대는 사회를 향해 할 말이 있는 여러 집단들을 위해 마당을 연다. 또 우리 사회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발굴해 마이크를 제공한다.

■ 유권자 직접행동은 '기획된 대규모 번개', '지속적인 캠페인', '플래쉬 몹' 등의 형태로 발현된다.

■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목소리를 담은 수백채의 텐트촌', '경부운하 반대 주장을 위한 남한강 횡단 인간사슬', '한 부모 가정의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1000m 이력서 행렬', '남북 군축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후보초청토론회'가 아닌 '유권자초청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다.

- 선거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초청해 경청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대형마트에 신음하는 영세상인, 대안이 안보이는 중소기업인, 아토피자녀를 둔 부모, 사교육비에 할 말 많은 학부모 등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답하도록 하는 역발상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특히 11월 중에는 1000개의 UCC 중에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은 7개를 뽑고, 이들이 주장하는 의제를 대선시민연대의 간판으로 내세워,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절실한 주장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더 강력한 의제가 될 것이다.

4) 하나의 거대한 실천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지상명령

■ 12월 8일(토), 대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은 한마당을 연다.

■ 한마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최우수 7개 UCC들, 그리고 그것들이 주장하는 의제들의 경연장이 된다.

■ 그곳은 시민사회가 가장 목소리 높여 주장해야할 의제를 선출하고, 수많은 번개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을 결의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은 흥겹고 독특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인터넷 투표, 전문가들의 평가, 시민단체들의 투표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인을 일깨워준 좋은 UCC 제작자에게는 소정의 시상도 할 것이다.)

- 이후 열흘 간, 2007대선시민연대는 전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나의 거대한 실천’을 집행할 것이다.

4. 일정

- 8월 : www.vote2007.or.kr 홈페이지 개통
- 9월 : 60만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하는 번개운동 시작, UCC 제작 지침 제공
- 10월 : 매주 수요일 번개 Day 시행, 1,000 UCC 경선, 번개모임 내용과 형식 등을 분석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
- 11월 : 유권자 직접 행동들 전개, 7대 UCC 선정
- 12월 : 유권자 한마당 개최(UCC 대상 선정, 하나의 거대한 실천 결의)
- 마지막 10일 : 시민사회 최대 의제, ‘하나의 거대한 실천’ 집행

[출범선언문]

2007대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비전제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무릇 유권자들이 사회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해나갈 새로운 정치를 고대하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과 대선 후보자들은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의 장을 만들어가기 보다 벌써부터 경선 혼탁과 과열, 정치공학을 앞세운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한결 같이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시대적 개발 중심의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기 좋은 나라, 교육받기 좋은 나라, 집걱정 없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주지하듯이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업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극심한 차별 속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에 달한다.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한숨이 깊어지고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은 더 이상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분별한 개발 속에 국토는 파헤쳐져 생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평등과 복지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군비확충에 쏟아붓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에 대항하여 시민운동이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교육개혁, 녹색사회, 성평등사회, 평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

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후보와 정당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는 정책선거를 만들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속의 사회양극화 심화, 생태적 위기, 교육 불평등, 주거 불안, 복지 축소, 평화위협 등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위협하는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미래 비전과 핵심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고, 동시에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이를 폐기하라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생생하게 집약하여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현장의 평범한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풀뿌리단체들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정치공학과 이합집산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 비판을 제기하고, 건강한 정당 정치와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은 4개월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선시민연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선거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07. 8. 30.

2007대선시민연대

[호소문]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지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책경쟁은 오간데 없고 낮 뜨거운 정치공방과 원칙 없는 이합집산만 있을 뿐입니다.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제 희망은 유권자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만들고, 후보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선거'란 표현이 그저 구태의연하고 공허한 단어로 사장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두 눈 부릅 뜨고 일어섭시다.

이번 대선에서 주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최근 젊은층의 유권자들은 '정치고, 선거고 관심 없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선거의 내용이 의혹과 모함, 이합집산과 정치적 거래로만 채워져 있으니 국민의 불신과 환멸이 커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유권자는 선거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빠진 무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선언하고, 당당하게 주인 노릇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거라는 공간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을 간간하게 검증하고, 비전과 공약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똑똑한 유권자만이 선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07 대선을 비전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지, 생태, 평화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IMF환란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시장 만능주의, 성장주의를 평등과 복지, 공동체의 가치로 바꾸고, 마구잡이식 환경파괴와 맹목적 개발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대선후보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을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

도록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처에 널려있는 중차대한 정치, 사회 현안들에 대해 대선후보와 정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이번 대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을 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와 낡은 정치는 엄중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2002년 대선, 2003년 불법자금 사건과 정치개혁운동, 2004년 탄핵과 총선을 겪으면서 우리 정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혼탁경선, 정당 정치 파행 등 그 동안 힘겹게 일궈놓은 정치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금권선거 의혹, 이합집산, 정당정치 파행 등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류에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낡은 정치세력에게 국민의 심판을 내리도록 합시다.

후보 한사람이 아닌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나서야 선거가 바뀝니다.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만의 선거,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적 이합집산과 정략만이 난무하는 선거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경도된 차별성 없는 정책은 날카롭게 평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합시다.

2007년 12월 19일에 후보 한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2007 대선판을 흔들어 봅시다.

2007년 8월 30일

2007대선시민연대